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공립 박물관(미술박물관 포함)이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국의 주요 공립 박물관들이 무료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다. 공짜 박물관의 관객 태도 문제, '공립 무료:사립 유료'의 비대칭 문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 부담원칙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지향으로 무료로 전환했던 공립 박물관들이 올해부터 서서히 유료화 또는 관람료 현실화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가 운영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공립 박물관의 합리적 운

공립 박물관 유료화 정책

영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서울시 산하의 박물관들은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 10월 1일에 '경기도 공공 뮤지엄 유료화 정책 전환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여론 수렴을 했다. 발제자로 참가한 김영호 교수(한국박물관학회)는 '뮤지엄의 사회적 기능과 유료화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유료화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도의원, 사립 박물관 관장, 문화재단 관계자 등 참가자들도 공감했다. 향후 유료화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합의점이 나왔으니 기대해볼 일이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유료화가 한 단계 성숙한 박물관 문화를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볼 일이다. 공공서비스의 유료화가 자칫 신

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도서관 들어갈 때, 무료 입장에 익숙해져 있듯이 박물관도 공짜여야 한다는 관행.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도서관 문화의 대중성에 비해 박물관 문화의 대중성은 아직 미비하다. 또한 모든 공공서비스가 모두 다 무료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일정한 정도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회적 합의도 있으니, 공짜 박물관 관행이 재검토 대상으로 떠올라 있는 것이다. 공립 박물관이 무료화를 하면, 상대적으로 사립 박물관들이 관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얼핏 보면 설마 그럴까 싶는데, 사립 박물관 운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심각하다. 이는 국립대학이 무료이고, 사립대학이 유료인 상황과 같은 이치인데,

대학이야 교육열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쳐도, 박물관은 문화적 미성숙한 영역이라서 공립과 사립의 현격한 비대칭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사립 박물관에도 안팎의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우선 공립·사립 박물관의 무료·유료 정책만큼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제주도의 공립 박물관들은 1000~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돈과 윤리의 문제를 연관 짓기 민망한 일이지만, 적은 금액을 내고 입장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람 자료로서의 차분한 예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립 박물관이 단체 관광객들의 싸늘이 관람으로 몸살을 앓는 사이, 사립 박물관들은 상대적으로 관객 유치의 기회를 잃는다는 점, 문화·관광 정책의 차원에서라도 재검토할 일이다.

사설

전면 등교·광장 개방... 이젠 '도민 몫이다'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에도 전면 등교수업에다 광장 개방 조치가 단행돼 '일상회복'의 수순을 예고했다. 전국적인 확진자 추이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지역 학생 확진자 감소, 장기 상권 침체에다 다음 달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도민 모두가 이런 때일수록 여태껏 준수해 온 모임·이동 자제 등의 방역수칙에 좀 더 자제력을 보여 차질없는 일상회복 일정에 동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말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수업결손, 학교 부적응 등을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모든 학교 등교수업을 결정했다. 최근 도내 평균 확진자수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인 10.28명인데다 학생 확진자도 1.14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 비수도권 지역 전면 등교를 허용한 정부 방침도 결정 근거 중 하나다. 제주도 탐동광장도 폐쇄 석달만

5일부터 개방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세에다 계속되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 전면 통제했다가 계절 요인에 의한 야외 음주·취식행위 감소, 인근 상권 침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모든 학교 등교수업과 탐동광장 개방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공 얼어붙은 사회·경제 전반 일상 회복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전면 등교와 광장 개방에도 학생 확진자와 지역감염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일상회복의 희망을 더 키워갈 수 있어서다. 도민 사회가 일상회복 계기를 앞둔 시점에 중단없는 자제력과 자발적 참여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간 보여준 이동·모임자제 등에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하고, 백신 접종·마스크 쓰기 등의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이 거리두기 중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변화의 시기, 도민 모두 경각심 유지가 최우선 관건이다.

열린마당

모두의 참여가 지하수 가치를 키웁니다



고수웅 제주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매년 결과를 내놓고 있다. 지하수의 오염 원인은 화학비료,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과 같은 우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인 것은 인간생활의 영역에서 오염되어진 물은 자연에 의해 순환하면서 빗물로서 깨끗한 물을 다시 인간 생활의 영역으로 되돌려 준다. 깨끗한 지하수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자연은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 바닷가에서 솟아나는 웅천수에 몸을 담그고 세상 시름을 잊는 사람들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바닷가 웅천수에 몸을 담그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고 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제주의 지하수를 깨끗하고 풍부하게 유지하려는 우리 모두의 실천이 모이면 자연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으로 눈과 강우에서 기원하는 지하수, 한라산국립공원, 중산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곳자왓, 겹겹이 여러 층으로 이뤄진 화산지층 등 제주의 자연환경으로부터 풍부한 함양과 깨끗한 수질의 지하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주는 지하수로 인해 물의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를 이용한 지 60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양적, 질적 지하수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994년 이후 장기간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해 지하수 수질 변화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 조사연구를 수행해

뉴스-in

원희룡 전 지사 2차 예비경선 지지 호소

선거인단 투표 참여 당부 ○...국민의힘 대선예비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진영이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당부. 원 전 지사 측은 4일 SNS 등을 통해 10월 6~7일 선거인단(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문자투표, 전화투표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에 동시에 진행되며 적극적 참여를 호소. 이어 "민주당과 싸워 5전 전승한 사람, 대장등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사람, 정권교체 필수 카드"라며 4강 진출을 위한 지원을 주문. 고대모지자 "해양쓰레기 관리능력 인정" ○...제주시가 해양수산부의 2021년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3곳에 선정되며 신속한 처리 등 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 시는 그동안 바다환경지킴이와 해양쓰레기 정화의 날 등 다양한

사업과 신속한 수거와 운반·처리 시스템을 통해 펄싱이모자반 등 해양쓰레기 처리에 다각도로 대처. 시는 또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청정·안전 휴양지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유공시민 4, 공무원 3)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시장 표창을 수여. 이윤형지자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제주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최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폭위' 운영과 가해·피해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학생의 징계(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 비율은 2016년 25.8%에서 2020년 57.7%로, 피해학생 치료 및 요양과 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8.9%에서 35.2%로 급증. 강 의원은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 오은지지자

무심코 버린 궤차, 큰 사고 부를 수 있다

제주지역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무엇일까. 담배꽂이다. 얼마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울해 세차터 진행한 '제주줍깅' 캠페인을 통해 그 답을 내놨다. 제주줍깅 캠페인은 제주해안 4. 공무원 3)에 대해서도 지난 1일 시장 표창을 수여. 이윤형지자 담배꽂이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만큼 담배꽂이가 도내 곳곳에 많이 버려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담배꽂이를 길가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저녁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곳곳에 무단투기된 담배꽂이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 불지각한 시민들이 식당과 주차장 인근에서 흡연 후 땅바닥에 그대로 투척한 것이다. 인근에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그냥 거리에 버리기 일쑤다. 이날 제주시청 대학로, 제주대학교 정문 인근에도 담배꽂이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

다. 흡연한 뒤 담배꽂이를 무단 투기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내 담배꽂이 무단투기 범칙금 부과 건수는 한해 100여건에서 많게는 400건이 넘는다. 현장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버려지는 담배꽂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꽂이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은 그대도 나은 편이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무심코 담배꽂이를 버리다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창밖으로 버린 담배꽂이가 자칫 다른 차량 내부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화제가 나지 않더라도 추미 차량 운전자의 안전한 전도 위협하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담배꽂이가 인근 숲속으로 날아든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평상시 무심결에 버리는 담배꽂이가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삼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서옥순(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5일 아 들 양이진 며느리 이서연 딸 양선희 사 위 장동훈 양성이 현홍민 양연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환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인화(향년 8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5일 아 들 문성석 며느리 오유경 딸 문현숙 사 위 송원경 정심 김영돈 정숙 김학구 미숙 김인중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